

# 전남대·조선대 의대 학사일정 또 연기

### 당초 15일 재개 예정이었으나 학생들 움직임 없어 전대 교수회의 '29일'로 늦춰...조선대는 오늘 논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사일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 14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이후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함에 따라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두 차례 연기한 끝에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상황 변화가 없

것으로 전망됨에 전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교수회의를 열어 개강 날짜를 오는 29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9일 개강'은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다. 전남대 의대는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늦어도 오는 29일에는 학사일정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재개 후 2

분의 출석을 채우지 않는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학교는 오는 29일까지 등록금 반환과 휴학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주가량 학사일정을 미뤘다. 29일이 지나서 복학할 경우 등록금을 재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남대 의과대학 재학생 731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보면 29일에는 개강을 해야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며 "부족한 수업은 주말이나 여름방학때 계절학기 등을 통해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개강한 조선대 의대도 전국

상황에 맞물려 학생들의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했던 15일에 학사일정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 당일 의대 교수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대 의대는 725명 가운데 53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없어 수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태로 유급처리 되면 등록금 환불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사일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며 "의대는 실습 시간도 확보해야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대기자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가동  
재정비를 마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음악분수'가 본격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음악분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7시30분에 가동되며 금요일과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12시30분, 7시30분, 9시30분 등 3회 운영된다. /김대기자

###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무등산국립공원, 전수조사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4일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의 공원 내 서식지 전수조사에 참여할 시민과학자 '식물조사단'을 오는 24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왕다람쥐꼬리의 멸종위기종 지정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서식 환경과 개체 수를 집중 확인한다. 모집 대상은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식물 조사 경험이 있는 식물 분야 전문가 20여명이다. 식물조사단에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8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장은정기자

## '다시 책으로'...광주 '1개교 1독서 교육' 순항

### 총 1천180개 프로그램 운영...市교육청 "예산 확대 권고"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추진 중인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에 맞춰 광주 전체 학교에서 '1개교 1독서 교육 프로그램'이 순항하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22개 학교가 각각 최소 1개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학교 특성에 맞춘 총 1천18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교별 프로그램은 ▲사제동행 아침독서 ▲매 수업 시간을 여는 '5분 독서'

▲독서 우수학급 시상 ▲학부모회 주관 책 읽어주는 선생님 ▲좋은 만남!(그림책 및 전자도서관 활용 수업) ▲독서논술토론회마당 ▲수업을 살리는 독서 ▲은책 깊이읽기 등이다. 시교육청은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예산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기존 1%에서 2%로 늘려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늘어난 독서 예산을 통해 풍부한 도서 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대학, 지자체, 직속 도서관, 교육지원청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독서교육 내실화 관련 교원 연수 및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연말에는 독서교육 운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독서 문화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0 해질 19:05  
달돋이 10:50 달짐 01:22

광주 비	17/20
목포 비	17/19
여수 비	15/18
나주 비	16/20
완도 비	16/21
구례 비	15/19
강진 비	15/19
해남 비	16/19
장성 비	16/19
보성 비	14/18
순천 비	14/18
영광 비	16/20
진도 비	16/20
흑산도 비	13/18
고흥 비	15/20

---

● 생활정보지수

너들이 30 빨래 20 세차 20 운동 70  
우산 챙기세요 잘 마르지 않아요 다음으로 미루세요 실내운동 즐겨요

---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5	1.0-3.0
서해 먼바다(북)	1.5-3.5	1.5-3.5
서해 먼바다(남)	1.5-3.5	1.5-3.5
남해 앞바다	1.5-3.5	1.5-3.0
남해 먼바다(동)	2.0-4.0	2.0-4.0
남해 먼바다(서)	2.0-4.0	1.5-4.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6:59	12:16
	18:39	24:59
여수	01:29	07:39
	12:59	19:33
녹동	02:13	09:16
	13:38	20:47

---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4월 16일(화)	☀ (13/22)	☀ (11/20)	☀ (15/25)	☀ (15/25)	☀ (14/20)
17일(수)	☁ (11/24)	☀ (10/23)	☀ (12/21)	☀ (11/25)	☁ (13/20)
18일(목)	☀ (11/22)	☀ (11/24)	☀ (12/25)	☀ (12/26)	☀ (13/21)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5·18 진상규명 헌신 '정동년 선생' 잇는다

### 오는 18일 광주 5·18기록관서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정동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4일 "오는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정동년선생 기념사업회(가칭)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기념사업회 창립을 통해 '5·18 사형수' 출신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정동년 선생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인의 유훈을 기리는 유·무형 사업을 전개해 생전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삶을 조망, 그의 정신을 후대에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고 정 선생은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시위를 주도했고 관련 비준반대투쟁을 이끌다 구속·재직했다. 이후 1980년 5월 내란 수괴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가장 오랜 옥고를 치렀다.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는 신군부의 고문 수사가 사실이라고 폭로했고, 1994년에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35명을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해 처벌을 이끌어냈다. /주성학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 ONEstore